



제목	The Roman Eastern Frontier and the Persian Wars, Part II AD 363-630: A Narrative Sourcebook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2. 3. 28.
저자	Geoffrey Greatrex, Samuel N. C. Lieu(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408
ISBN 또는 ISSN	978-0415465304

내용 요약

이 책은 *The Roman Eastern Frontier and the Persian Wars AD 226-363: A Documentary History*라는 책의 후속편이다. 전편과의 차이점은 발췌한 사료에 상세한 설명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363-630년 로마의 동부 변경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편보다 포괄적이라는 차이점도 있다. 전편이 1세기에 걸친 이야기라면 이 책은 3세기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제국 말기의 상황뿐 아니라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와 호스로 1세(Khusro I)의 페르시아 전쟁, 호스로 2세의 재현된 적대 행위, 헤라클리우스 황제의 노력과 사산제국의 몰락, 아랍 정복 이전의 상황까지를 모두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상당히 긴 사료, 가치 있는 사료, 희귀한 사료도 잘 축약,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에는 로마 남쪽 변경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비문 증거도 수록되어 있다. 전편과 달리 현대 학자들의 견해도 상당수 있다.

정치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사료를 정리하다 보니 군사사, 정치사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70쪽이 넘는 다양한 일화들, 몇 개의 지도들은 상황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황한 느낌도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고대 후기 로마와 페르시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의 다양성은 제고시켰지만 사료 비판이라는 고도로 복잡한 과정이 없다. 또 사료를 선정하는 기준도 불명확하고, 강조되거나 빠진 사료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 사료의 중요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